

# 쌍용차-에디슨모터스, 매각 협상 본격화… 자금조달 ‘관건’

오늘 인수합병 MOU 체결  
정밀실사 후 본계약 협상

이르면 내년 초 회생절차 매듭  
산은과 자금조달 놓고 대립 전망

쌍용자동차가 2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M&A)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후 본 계약을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2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다.

양사의 MOU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된 지난달 25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양사는 협의기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체결기한 이틀 연장을 요청했다. 양사는 연장된 기한에 맞춰 2일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평택 공장 전경.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양해각서 교환 이후 약 2주간 정밀 실사를 진행하고 인수 대금과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본 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본 계약 협상이 마무리되면 쌍용차는 향후 부채 상환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 계획을 마련한다. 계획안이 마련되면 연내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 설득에 나선다. 채권단과 주주가 회생 계획안에 동의하고, 법원이 최종 인가하면 회생 절차는 마무리된다. 업계는

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초 쌍용차 회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쌍용차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인수 자금 확보를 두고 에디슨모터스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어 최종까지 몇 차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14분기 연속 적자에 시달렸고, 지난해에도 44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쌍용차의 부채 규모는 7000억여원이다. 회생절차와 별도로 인수 후 즉각

깊어야 할 공익채권만 4000억원으로, 경영 정상화까지는 1조원이 넘게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디슨모터스는 당초 쌍용차 인수 필요 자금으로 약 1조 5000억원을 예상했다. 이중 인수가로 제시한 3100억원을 포함한 8000억여원을 자체 마련하고 나머지는 산은으로부터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지난 22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인

수합병 및 경영 정상화에 최대 1조6천 2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차 유상증자로 8천400억원을 자체 마련하고, 나머지는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산은에 대출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산은은 “인수 관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담보 대출 담위성과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금 조달 내용과 수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쌍용차에 이미 1900억원의 대출을 해준 상태다. 그 과정에서 4000억원 규모의 담보를 설정했기에 현재는 의미가 없으며, 사업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지난 달 열린 국감에서 “쌍용차 입장에서 담보가액이 전혀 의미가 없고, 앞으로 기업회생 가능성과 사업성이 주요 관점”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네이버클라우드, SaaS 기반 RPA 첫 선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제고  
오케스트레이터 클라우드화  
하이퍼오토메이션 실현 가능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클라우드 업체 최초로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RPA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RPA를 적용하면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 업무 속도와 정확도는 높이고 운영 비용은 절감하는 등 효율성

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RPA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No.1 RPA 업체인 유아이패스(UiPath) 솔루션을 SaaS로 제공한다. 국내 대기업 및 금융기관 다수가 도입중인 해당 솔루션을 온프레미스(On-Premise)가 아닌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 중 네이버클라우드가 처음이다. 맞춤형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까지 엔드투엔드(End-to-End) 서비스를 위해 유아이패스의 전문 파트너인 RPA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 LS ITC와 협력한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RPA Service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도구인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를 클라우드화했다. 어느 환경에서나 복잡한 인프라 구축이나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로봇 등 록부터 배정, 모니터링, 일정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클로바(CLOVA) AI 서비스와 연계해 한 차원 발전한 RPA의 형태인 하이퍼오토메이션(Hyper Automation)을 실현할 수 있는 점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

## 우버-티맵 합작 ‘우티’, 본격 시동

통합 UT앱 출시… “내년 택시 2만대”  
사전확정 요금제·합승 서비스 계획

우티(UT)는 앱 기반 사전 확정 요금제를 채택하고 고객들에게 가격 설정 기술을 이용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탑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택시 합승 서비스인 ‘우피 풀’과 빠른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티 플래시’ 등 새로운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기업 우버와 Uber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우티 유한회사(UT LLC)가 1일 새롭게 통합된 UT 앱 출시를 맞이해 개최한 UT 앱 출시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UT는 ‘우리들의 택시’라는 의미로 기사, 승객과 지역 공동체 간의 상생과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통 화이트 UT CEO는 “우버가 가진 글로벌 기술 노하우와 운영능력, 티맵의 현지 전문성과 맵핑 기술을 UT앱에 적용했다”며 “UT앱은 1년 동안 추진해 온 결과물로 한국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선보인 통합 UT 앱에 대해 “티맵의 뛰어난 내비게이션 기술과 전 세계에서 다년간 실제 운영을 통해 증명된 우버(Uber)의 우수한 기술을 결합해 목적지까지 빠르고 효율적인 여정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무엇보다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탑승 정보를 가족, 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시작으로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UT는 이날 새로 선보인 앱에서 가맹과 중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가맹 택시 서비스인 UT 택시에는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는 대로 사전 확정 요금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전 확정 요금제는 UT 택시가 새롭게 선보일 요금제로 승객이 입력한 목적지를 바탕으로 앱 상에서 미리 요금을 고지하고, 사전에 이용 요금을 확정



통 화이트 UT CEO(오른쪽)와 김기년 COO가 1일 개최된 UT 앱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UT

하는 것이 골자이다. 승객은 탑승 후 도착 지점에서 실제 이용 금액과 관계 없이 탑승 전 안내받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단, 교통사고, 도로 공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요금이 재산정 될 수 있다.

UT는 국내·외 승객을 위해 UT와 Uber 앱을 통합 연동시켜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UT 앱은 안전 기능을 비롯한 Uber 앱 기능을 그대로 제공하며, 국내 UT 앱 이용객이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외국에서 Uber 앱을 사용하던 이용객도 별도 앱 설치 없이 국내에서 U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UT는 인앱 메시지 번역 기능을 탑재해 언어장벽 없이 국내·외 승객 모두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고객센터를 24시간으로 확장해 기능을 보강하고, 내년에도 투자를 단행해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통 화이트 CEO는 이날 UT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화했다. UT는 UT 택시(가맹 택시)와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 지역을 전국 단위로 운영하며, 연내 가맹 택시를 1만 대까지 확장하고, 2022년에는 1만 대 이상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윤정 시 전문기자 echo@

## 카카오게임즈

### ‘오딘’ 개발사 지분 인수

카카오게임즈가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개발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인수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선다.

카카오게임즈 유럽 법인은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확대하고자 개발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지분 약 30.37%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이와 함께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글로벌 판권 계약을 진행, 오딘의 해외 시장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투자를 통해 검증된 개발력과 성공한 게임 IP(지식재산권)를 갖춘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와 협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유명 개발자 김재영 대표가 2018년에 설립한 회사로, 지난 6월 출시한 크로스 멀티 플랫폼 MMORPG ‘오딘: 발할라라이징’의 게임성을 인정받아 2021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임 개발사로 등극했다.

/강준혁 기자

## “랜선으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즐기세요”

LGU+ TV·모바일서 독점 중계

LG유플러스는 자사의 IPTV 서비스 ‘U+tv’와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U+모바일tv’에서 오는 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18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독점 중계한다고 1일 밝혔다.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의 온·오프라인 행사 동시 개최는 18년만에 처음이다.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2004년부터 매해 가을에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최장수 재즈 축제다. 지난 17회 때까지, 55개국 1147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했으며, 누적 관객은 23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10월 일정이 11월로 연기됐으며, 제한된 인원의 현장 관람과 LG유플러스 IPTV 및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중계, VO D(다시보기) 서비스를 병행한다.

올해 자라섬페스티벌에는 이날치, 선우정아, 바다, 나윤선 등의 출연진이 확정돼 재즈 팬은 물론 대중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첫째날엔 ‘한국 최고의 집시 기타리스트’로 불리는 박주원이 무대에 오른다. S.E.S.의 리더보컬 바다와 조영민 그룹의 리더 기타리스트 조영민의 특별한 컬래버 프로젝트 펼쳐진다. 싱가포르의 대표 재즈 보컬리스트 ‘알리메이 페르난데즈’ 공연도 주요 볼거리다.

둘째날에는 지난해 ‘뽐 내려온다’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이날치’가 나선다. 2014년과 2021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과 ‘최우수 알앤비&소울-음반’ 부문 수상 선우정아의 무대도 주목할 만하다.

/채윤정 시 전문기자